



## 실천신학적 관점

# 공동체성과 관계성: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

Communality and Relationality:  
Reformed Foundations and Directions of the Pastoral Ministry for the Asian Churches



**주종훈 Jonghun Joo**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jhjoo@chongshin.ac.kr

## <초록>

목회 사역은 복음의 본질과 상황적 수용이라는 신학과 문화의 복잡한 과제를 직면하게 한다. 아시아지역의 교회들은 선교의 과정에서 주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과 서구문화의 형태를 힘입은 사역을 구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오랫동안 신학과 문화의 통합 원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원리로 받아들여 왔다. 이 글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의 상황화 과정이 목회 사역에 미친 영향을 비평적으로 해석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문화의 상황적 수용을 위한 사역의 토대와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주의 기독교와 더불어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인정하지만, 회심 중심의 사역을 넘어서는 토대와 방향을 제시한다. 개혁주의 목회는 성경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성을 공동

체를 통해 구축하는 것에 집중한다. 언약에 기반을 둔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회심을 통한 새로운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성 구축에 집중하고,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실제로 나타나는데 주력하고, 교회 사역의 선교적 지향점을 명확히 반영하며,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 공동체의 다문화적 상황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에 주력한다.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아시아 교회들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토대와 방향이 되며, 이에 기반을 둔 세분화된 사역의 실천 지침 개발을 요구한다.

### 1. 들어가는 말: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과 문화의 복잡성

기독교 목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sup>1</sup> 윌리엄 윌리몬(William Willimon)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고 동시에 교회의 지도력을 통한 사역이다.<sup>2</sup>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 목회 사역은 단지 그룹의 매니저나 운동 경기의 코치와는 달리 성경에 기초하고, 신학에 토대를 두며, 문화적으로 적실성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회 사역에 대한 해석과 이해, 신학의 전통과 강조점, 그리고 문화적 상황과 회중들의 특징은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유형을 결정한다. 곧, 목회 사역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신학적 정체성을 제시하며 문화적 적실성을 지혜롭게 반영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한 지역과 문화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의 유형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변화 없이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 제시될 경우, 성경과 신학의 강조점은 지속할 수 있지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접근은 어렵다. 이와 반대로 문화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반영하는 목회 사역은 성경과 신학의 안내에 따른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형성보다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방식의 기울어진 사역이 될 수 있다.

신학과 문화의 복잡성이라는 목회 사역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구기독교는 문화화된 기독교를 비서구기독교에 주입하거나 답습하도록 주도해 왔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 또는 문화화(inculturation)는 오랫동안 선교 영역에서만 아니라 교회 사역의 유형과 방식에도 주도적인 원리로

1 Christopher Beeley, *Leading God's People* (Grand Rapids: Eerdmans, 2012)

2 William Willimon,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4), 14-18.

수용해 왔다.<sup>3</sup> 상황화 또는 문화화는 복음을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과 교회 사역을 문화에 부합하게 제시하는 것은 신학과 문화의 통합 원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원리로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상황화'는 단지 복음의 본질을 상황적으로 수용하거나 하나의 이상화된 형태를 문화적 특수성에 부합하게 제시하는 것이기 보다는 이미 문화의 형태로 주어진 내용과 방식을 또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유기적 전환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곧, 이미 문화화된 내용과 방식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요구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서구기독교의 문화화된 형태를 모두가 따라야 할 전형 또는 규범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또 다른 문화적 상황에 답습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사역 곧 목회를 위한 신학과 문화의 접근을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별히 아시아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서구기독교의 선교 대상으로 간주되어왔고, 그로 인해서 문화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아시아 교회들의 건강하고 성숙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신학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목회 사역에서 신학적 정체성과 문화 이해와 수용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목회 사역은 단지 교리를 체계화된 공식이나 원리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이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와 종교의 특징을 동시에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신학적 관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나 문화의 특징을 동시에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글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문화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서구기독교의 상황화에 영향을 받아 온 아시아교회들의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한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첫째로, 아시아교회들이 그동안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복음주의적 서구기독교의 사역 방식과 유형을 답습해 온 현실과 특징을 비평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제시하고, 동시에 개혁주의 문화에 근거한 사역의 원리를 구축한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의 접근이 회심과 전도를 넘어서서 삶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신학과 문화의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과 문화에 토대를 둔 공동체성 강화와 관계성 구축을 위한 목회 사역의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3 복음주의 선교의 상황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대해서는 A. Scott Moreau, *Contextualization in World Missions: Mapping and Assessing Evangelical Model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12) 참고하고, 사역 가운데 예배의 상황화에 대해서는 Anscar Chupungco,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s, Religiosity and Catechesi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5)를 참고.



## 2.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특징과 과제

오늘날 아시아지역<sup>4</sup>의 기독교 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목회 사역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 현상과 선교에 나타난 다양한 방향성은 더 이상 어느 한 지역과 하나의 기독교 신앙 형태가 모든 지역의 기독교 신앙과 목회를 위한 고정된 모델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비평적으로 받아들인다.<sup>5</sup> 하지만, 외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목회 방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현상 그리고 특징은 주로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비롯된다. 복음주의 기독교는 신학 전통 또는 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수용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은 ‘복음주의’가 지닌 의미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교리 확증, 둘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구원의 확증, 셋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에의 참여, 넷째는 전도와 선교의 강조, 다섯째는 변화된 영적 삶의 강조다.<sup>6</sup> 이러한 복음주의의 개념은 목회 사역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변화된 삶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도록 원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로,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회심 경험의 강조에 있다. 복음주의 개념이 제시하는 성경, 그리스도 중심성,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변화된 삶은 실제 목회 사역에서는 (1)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2)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3)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에 참여하며, (4) 변화된 삶을 위한 회심과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게 한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원리는 교단을 넘어서서 기독교의 통일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과제로 수용해 왔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적 원리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이러한 원리를 먼저 수용한 서구기독교가 비서구기독교에 복음을 전하면서 발전시킨 사역은 우선 ‘회심’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마크 놀(Mark Noll)은 자신의 책,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현상』(*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sup>7</sup>에서 서구 복음주의 기독교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비서구기독교

4 이 글에서 언급하는 ‘아시아지역’은 방대한 여러 지역과 나라들 가운데 특정한 한 지역보다는 대륙으로 구분된 비서구지역의 비서구권 사역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5 Michael Goheen, *Introducing Christian Mission Today: Scripture, History and Issues* (Downers Grove: IVP, 2014), 25-6. ‘세계 기독교’ 현상은 기독교 복음 전도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선교의 다양한 방향성은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인 방향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6 George Marsden, “The Evangelical Denomination,” *Evangelicals: Who They Have Been, Are Now, and Could Be*, ed., Mark Noll, David Bebbington, and George Marsden (Grand Rapids: Eerdmans, 2019), 22-3.

7 Mark Noll,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 (Downers Grove: IVP, 2013).

에 영향을 미친 영향은 ‘회심’에 집중하는 기독교 사역이라고 비평적으로 제시한다. 곧 미국의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목회 사역의 방향과 과제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한다. 중생은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경험하고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하는 지속적인 성장 가운데 부분적인 경험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형성을 위해서 목회 사역 가운데 회심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사역은 중생 경험에 대한 고백과 간증(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강화하지만, 전인적으로 신앙을 형성하는 목회 사역의 과제를 축소시킨다.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에 충실한 목회 사역은 회심과 중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과 삶의 전인격적 형성”<sup>8</sup>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따른 목회 사역의 또 다른 특징은 복음과 문화의 연결과 통합에 나타난 상황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복음의 본질을 다양한 지역과 대상에 적용하는 원리와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 상황화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질을 반영하는 대상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황화는 문화화(inculturation; acculturation) 또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불가피하게 강조한다. 기독교 복음의 선교적 목회적 적용 과정에서 발전시킨 구체적인 문화화의 방식은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창의적 동화(creative assimilation), 그리고 유기적 진전(organic progress)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문화적 상황에 적실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sup>9</sup> 이 방식은 복음의 본질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지만,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and culture)를 넘어서서 복음의 문화화(inculturation of the gospel)를 강조하는 원리로 나타난다. 하지만, 목회 사역에서 복음의 문화화는 이상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불변하는 복음과 다양한 문화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도전이 주어진다.<sup>10</sup>

이러한 목회 사역의 어려운 도전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는 특정한 문화의 ‘우월주의’와

8 James Wilhoit, *Spiritual Formation As If The Church Mattered: Growing in Christ Through Community* (Grand Rapids: Baker, 2022), 10-24.

9 Anscar Chupungco, *Cultural Adaptation of the Liturgy* (New York: Paulist Press, 1982); *Liturgies of the Future: The Process and Methods of Inculturation* (Mahwah, NJ: Paulist Press, 1989);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als, Religiosity, and Catechesis* 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독교와 문화의 선교적, 목회적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추봉코가 발전시킨 원리는 Charles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Maryknoll: Orbis Books, 2005)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화화의 방식에 대한 예배와 목회적 수용이다.

10 Janel Curry, “Cross-Boundary Faith: The Universal and the Contextual,”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47.

복잡한 문화 사이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미 다른 문화의 상황에서 발전한 형태를 우월적으로 수용하거나 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비평적으로 수용하지 않은채, 혼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각각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마크 프란시스(Mark Francis)는 문화의 우월성과 중심성을 특정한 지역에서 주어진 기독교 신앙 방식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경계한다.<sup>11</sup> 마이클 혼(Michael Hawn)은 미국의 문화 방식에서 주어진 기독교 사역의 형태는 우월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sup>12</sup> 토드 빌링스(Todd Billings)는 성육신적 접근과 상황화의 이론에 대한 이론적 이상적 연결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정 문화의 옷을 입은 기독교 사역이 다른 지역에 상황화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문화 우월주의를 반영한다고 비평적으로 제시한다.<sup>13</sup> 이와 더불어, 자넬 커리(Janel Curry)는 상황화가 목회 사역의 현실에서 성경과 문화적 표현 사이의 혼합주의적 형태를 제시하고, 결국 특정 문화의 기독교 사역이 다른 문화의 기독교 사역에 대해서 비평적 태도와 판단에 사로잡힐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sup>14</sup> 이처럼 복음주의의 기독교는 전도와 선교의 강조를 통해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지역과 상황에서 문화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다. 하지만 상황화 또는 문화화의 이상적 또는 방법론적 적용과 연결에 나타난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한 복잡한 과제와 신학적 경계를 직면하게 한다. 성경의 가르침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우월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 수용은 경계한다.

셋째로, 복음주의 목회 사역에 나타난 특징은 회심 경험의 강조와 복음의 문화적 표현 곧 상황화를 이끌면서 사역의 과정과 내용에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 사역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문화의 표현 방식 과정에서 가치를 내포한다. 곧, 북미 기독교의 신앙과 사역은 ‘북미’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반영한다. ‘아시아’ 기독교의 신앙과 사역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반영한다. 여기서, ‘북미’ 또는 ‘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의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에 담긴 가치를 분별해야 하는 과제를 요구받는다. 북미 기독교의 문화적 특징은 복음전도 과정에서 오랫동안 전 세계 복음주의의 기독교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배한다. 북미 기독교에 스며있는 문화의 가치는 그 자체로 성경적 기독교의 문화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 신학자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rness)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친 후, 북미로 돌아가서 『미국은 복음을 어떻

11 Mark Francis, *Shape a Circle Ever Wider: Liturgical Inculturation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Liturgical Illustration Press, 2000).

12 Michael Hawn, *Gather Into One: Praying and Singing Globally* (Grand Rapids: Eerdmans, 2003).

13 Todd Billings,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2011), Chapter 5.

14 Curry, "Cross-Boundary Faith," 48.

게 듣고 있는가?』(*How Does America Hear the Gospel?*)<sup>15</sup>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문화적 수용 방식에 담긴 개인주의, 실용주의, 낙관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미국 기독교는 개인의 회심 경험, 교회 사역의 외적 성장에 집중하는 실용주의, 그리고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확신하는 낙관주의에 깊이 몰들어 있고, 그것을 복음 전도와 교회 사역에 반영한다는 것을 풀어낸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에 드러난 문화적 가치 곧 개인의 신앙 경험 강조, 교회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 그리고 물질적 풍요에 대한 낙관주의적 기대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임스 스미스(James K.A. Smith)도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에 나타난 지성주의적 접근과 소비주의 가치가 목회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심도 있게 풀어낸다. 스미스(Smith)는 자신의 책, *Desiring the Kingdom*에서 기독교 사역에서 단지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으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이 강조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다.<sup>16</sup> 복음주의 기독교는 교회 사역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의 형성을 위해 교리의 가르침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스미스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 복음을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기독교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고, 또 둘 사이가 자연적이고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sup>17</sup>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역은 대부분 성경 공부와 교리의 가르침이 곧 사역의 전부 또는 실천의 핵심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성경을 배우고 정통 기독교 교리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그 자체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원리는 비평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다. 목회 사역의 현실에서는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핵심 신앙 교리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성령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지혜로운 참여와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지식과 정보 수용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의 원리와 방식은 성경과 삶의 형성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이고 효력을 제시하는 과제를 요구받는다.

15 William Dyrness, *How Does America Hear the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1990).

16 James K.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2009).

17 Smith, *Desiring the Kingdom*, 31-2.

### 3.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신학적 문화적 원리

복음주의 기독교가 목회 사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회심을 강조하고, 복음의 문화화 또는 상황적 수용을 강화하며, 복음의 문화적 표현에 내포되는 가치에 주목하고 복미 중심의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주지주의를 반영한 사역의 특징을 고찰하게 한 것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여가 된다.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 권위와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고, 복음과 문화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수용하며 목회 사역에 반영한다. 복음주의 기독교와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은 목회 사역에서 모두 성경과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개혁주의 전통은 문화의 상황화가 지닌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아울러, 목회 사역의 고정된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도 경계한다. 목회 사역과 관련한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의 원리는 성경에 따른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언약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을 향한 섬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언약에 기반을 둔다. 언약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적 관계성을 발전시킨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으로서 언약<sup>18</sup>은 약속에 기반을 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언약은 인격적 관계 구축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은총이며, 개인의 성취를 위한 보장이 아니라 교차문화적(cross-cultural)이고 다세대를 연결하는 공동체적 관계 구축을 강조하며, 스스로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으로 확대되는 외심적(exocentric) 특징을 지닌다.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이처럼 인격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포용적 특징을 지닌 언약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sup>19</sup>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계성의 특징과 강조는 언약이 단지 개념이나 이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간섭과 역사임을 강조한다.

언약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공동체적 관계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목회

18 창 9:8-11(노아), 창 12:1-2(아브라함), 사 11:6-9; 렘 31:27-33; 32:40, 겔 34(다윗), 마 26:28(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고후 3:6, 롬 9:4(바울) 등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제시하는 성경의 표현들이다.

19 Michael Horton, *Covenant and Eschatology: The Divine Drama*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3.



는 개인의 성취를 위한 수단 제공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돌봄<sup>20</sup>을 넘어서서 약속에 기반을 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구축을 위한 섬김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공동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세상에서 단절된 관계에 속한 이들을 향한 외심적 노력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더불어 강조한다. 곧 소외, 단절,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그룹과 문화, 인종차별, 적대, 불의 등으로 인해 단절된 대상을 향해 다가가고 다시 건강한 관계 방식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곧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관계 방식을 이웃과의 관계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약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은 존 윌트빌릿(John Witvliet)이 비평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언약 자체의 개념보다 언약의 왜곡(distortion of covenant) 또는 잘못된 관계 방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sup>21</sup> 개혁주의는 세상과의 관계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 회복의 목회적 노력은 언약이 단지 신학의 추상적 개념이나 이미지를 넘어서서 신앙과 삶을 구축하는 실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초청과 더불어 참여를 위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삼위일체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구축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존재(Being-in-relation)하시는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아들, 성령은 상호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 거하시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방식으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은 단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개념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필립 부틴(Philip Butin)은 자신의 책,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Divine-Human Relationship*에서 칼빈의 성경적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이고, 인간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논증한다.<sup>23</sup> 인간은 근대 이후 개인의 관점에서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주의에 근거한 근대 기독교 신앙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개념으로 제한시키

20 개인주의에 뿌리를 둔 기독교 사역은 믿음을 개인 성취와 만족의 수단으로 축소하거나 전환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에 집중한다.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Christian Scharen, *Faith As A Way of Life: A Vision for Pastoral Leadership* (Grand Rapids: Eerdmans, 2008)에서 명료하게 제시한다.

21 John Witvliet,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78.

22 James K. A. Smith, *Awaiting the King: Reforming Publ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17), 1-18.

23 Philip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참고.

고, 한 분 하나님과 삼위 사이의 논리적 논증에 집중했다. 콜린 군튼(Colin Gunton)은 개인주의에 근거한 하나님 이해와 수용이 근대 사회에 미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자신의 강연에서 신랄하게 비평했다.<sup>24</sup>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재 방식을 반영한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하나님 이해를 경계한다. 우리가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삶의 방식도 성경에 따른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강조한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개혁주의적 강조는 목회 사역의 중요한 원리로 수용될 수 있다. 목회는 삼위 하나님에 따른 인간의 형상을 이 땅에서 구축하도록 돕는 노력과 실천을 지향한다. 기독교인은 한 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동체적으로 정체성을 구현한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과 존중을 공동체에서 직접 드러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된다. 목회는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공동체로부터 출발하는 한 지체 곧 몸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직접 강화하는 사역이다. 여기서 목회는 성도 각자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책임과 반응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인간의 온전한 풍요와 실현은 완전한 자율적 존재로 스스로 간주하거나 개인의 성취를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존재 방식으로 거할 때 주어진다.<sup>25</sup> 물론,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은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인정한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죄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목회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과 거리를 갖고 있으며, 기계적인 모방으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 땅에서 구축할 수 있다는 신학적 이상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간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공동체에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존재 방식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향한 책임을 지속하는 것이 요구된다. 스티븐 시먼즈(Stephen Seamands)는 기독교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목회적 실천 방식의 일곱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시먼즈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을 목회 사역에 반영하는 과제는 ‘관계적 인격성’(relational personhood)의 구축, ‘친밀함’(joyful intimacy) 강화, ‘기쁨으로 자신을 낮춤’(glad surrender), ‘복잡하며 단순한 삶의 역설’(complex simplicity) 인정, ‘자기 받아들임’(gracious self-acceptance), ‘상호 의존의 존재 방

24 Colin Gunton, *The One, The Three, The Many: God, Creation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5 Ruth DeBorst, “Men and Women: Made by and for Community,”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86.



식'(mutual indwelling), 그리고 '열정적인 섬김'(passionate mission)이다.<sup>26</sup> 이 일곱 가지 원리 또는 사역의 방식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성도들의 삶을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모습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로 수용할 수 있다.

셋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세상 문화 수용과 변혁을 위한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웃과 세상에 반영한다.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은 교회의 보편성과 더불어 지역성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의 위치와 책임을 강조한다. 칼빈은 중세의 신학뿐 아니라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개혁을 강화했다.<sup>27</sup> 칼빈 이후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를 단지 이상적인 보편 교회로만 이해하거나 축소된 의미의 제도적 교회로 제한하지 않는다. 곧,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를 이상적 개념으로 추상화하거나 좁은 의미의 제도로 제한시키면서, 개인적인 소명으로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한 개입과 변혁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역(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이다. 리차드 마우(Richard Mouw)는 개혁주의 전통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한시키거나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을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한다.<sup>28</sup> 개혁주의 전통은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상호 연결하고, 양육하는 실천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개혁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를 구축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그 관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가 이 땅에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으로 구현되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과정과 방식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하고 직접 참여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물론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과 기준이 아니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필요한 실천과 참여 방식이다. 곧, 비트빌릿이 정리한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 성례의 집행, 전도와 목회적 돌봄 등과 같은 교회의 다양한 실천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불가피한 요소들로 수용"<sup>29</sup>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목회

---

26 Stephen Seamands, *Ministry In The Image of God: The Trinitarian Shape of Christian Service* (Downer Grove: IVP, 2005).  
27 칼빈의 개혁 사상과 실천의 가장 중요한 대상과 영역이 바로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는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것(The Necessity of Reforming Church)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8 Richard Mouw, "Elected For A Global Mission,"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24.  
29 Witvliet,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81.

사역은 전통적으로 수용해 온 은혜의 방편들(말씀, 성례, 기도)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 제시를 강조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결정하지 않지만, 은혜의 방편을 통한 신앙 형성과 양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구원 사역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에 참여한다.

넷째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문화 이해와 수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을 교회론에 반영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문화에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독려한다. 프레드 그래함(Fred Graham)은 칼빈의 신학은 성경과 세상(the Word and world)의 긴지한 고찰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sup>30</sup> 아브라함 카이퍼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세상과의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속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한다.<sup>31</sup> 윌리엄 더니스(William Dyrness)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교회 사역이 지향하는 문화의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켰다. 더니스에 따르면,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인간의 참여로써, 삼위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 방식을 구축하고(establishing patterned relationship between the Trinitarian God and God's world and people),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구현하고 감당하는 실재(agency and embodiment of the Trinitarian God's ministry)이다.<sup>32</sup>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 문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따른 질서를 반영하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도 교회의 소명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세상과 문화가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 방식을 구축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목회 사역은 제도적 교회의 실천이 유기적 교회(성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문화 이해와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복음의 상황화에 따른 접근과 구분된다. 복음의 보편적 본질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구현하는 것은 '상황화'의 일반적인 입장과 같지만, 개혁주의 전통은 상황화에서 초래되는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한다. 상황화를 위한 신학적 토대는 선교학에서 주어진 성육신 원리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의 문화에 실제로 다가와 구원 사역을 하신 것에 따라, 특정한 문화에 영향을 받는 기독교 복

30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78).

31 Abraham Kuyper, "Calvinism and Politics," in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4), 79-80.

32 William Dyrness, *The Earth Is God's* (Maryknoll: Orbis Books, 1997), 18-24.

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문화적 상황화를 통해 다가가는 노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토드 빌링스(Todd Billings)가 비평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성육신적 사역(incarnate ministry)의 접근과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한다.<sup>33</sup> 하나의 문화는 다른 문화에 성육신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천의 실재에서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연합하고 각각의 독특성을 지니며 또 다른 문화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교회사역은 문화의 다름과 지체의 다름(difference)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sup>34</sup>

#### 4. 공동체성과 관계성 구축을 위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방향과 실천 과제:

##### 아시아교회들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에 따른 목회 사역은 복음주의 기독교와 더불어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강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접근과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와 달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관계성을 강화하고, 인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반영하는 사역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개인적 접근보다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균형과 역할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복음과 문화의 연결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기존의 상황화에서 주어진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며, 문화에 담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과 이를 위한 교회 사역의 역할과 성육신적 접근을 넘어선 다양성에서 주어지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어진 신학과 문화의 토대에 따라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실천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언약을 목회 사역의 직접적인 과제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언약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목회 사역에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약이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33 Billings, *Union With Christ*, 86-88.

34 Billings, *Union With Christ*, 109-110.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구축하는 언약에 기반을 둔 목회 사역은 개인의 성취와 만족을 위한 신앙의 수 단화를 경계한다. 삶의 풍요로움이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확신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 계를 자신의 필요에 따른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고정할 때 언약에 기반을 둔 신앙 이 형성된다(눅 10:25-27).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에 근거한 삶의 방식에 따라 관계성의 단절과 배제 그리고 소외와 외면 등에 직면하고 있다.<sup>35</sup> 특히, 글로벌 사회로 진입하면서 서구 사회뿐 아니라 아시 아지역에서도 고립, 단절, 개인주의, 혐오, 배제, 차별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진다.<sup>36</sup>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직접 형성하는 목회적 실천 과제는 중 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약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안에서의 목회 사역은 하 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교회의 기본 실천에 집중하는 것이다. 설교, 성례, 가르침, 전도, 목회적 돌봄의 다양한 목회적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성 요소들이다. 역사적 기독교와 개혁주의 전통에서 강화한 목회 사역의 기본 요소들(말씀, 기도, 성례) 을 간과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목회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적실성을 갖기 어렵다.<sup>37</sup> 특히 하 나님과의 관계성 구축을 강화하지 않은채, 사회적 현실의 과제들을 직접 참여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행동주의(activism)를 이끌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 력과 참여를 어렵게 한다.<sup>38</sup>

둘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공동체의 실천 곧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 한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비전을 목회 사역의 중요한 실천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다. 실제 로, 언약의 공동체적 경험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에서 더욱 선명하게 요구된다. 개혁주 의는 개인 경건을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삶으로 확대하는 것 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례에 참여하는 것 등을 관 계성 구축과 회복을 위한 목회 사역의 핵심 과제로 수용한다.<sup>39</sup> 이러한 공동체적 실천은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구축하는데만 집중하는 실천을 경계한다. 오히려

35 Andy Crouch, *The Life We Are Looking For: Reclaiming Relationship In A Technological World* (New York: Convergent, 2022), 121-130.

36 Willie,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79.

37 Witvliet,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81.

38 Emmanuel Katongole and Chris Rice, *Reconciling All Things: A Christian Vision for Justice, Peace and Healing* (Downers Grove: IVP, 2008).

39 Susan Felc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120.

개인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한 지체로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러한 정체성 규정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할 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시아교회들은 서구 사회와 달리 개인주의에 근거한 신앙과 삶의 형성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직접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화된 서구기독교 신앙의 형태는 비서구 사회에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강조하지 못했다. 이러한 목회 사역에서의 공동체성 강조는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라는 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그룹이나 개인의 비전 성취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이나 신분 등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듣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언어를 공유하며, 환대와 인정의 성례에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셋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회심 중심의 사역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형성(faith formation)에 주력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을 통한 사역에서 복음을 강화하는 것은 회심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신앙과 삶의 형성에 주력할 것을 요구한다. 서구 복음주의 기독교에 영향을 받아 교회 사역과 공동체의 모임에서 주로 강조해 온 실천은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반응이다. 곧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은 회심자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해 왔다.<sup>40</sup> 회심자를 이끌어내는 사역의 방식은 근대 기독교 역사의 공동체 모임에서 드러난 집회 형태의 목회 사역을 강화한다. 모임에서 참여자들의 (1) 마음을 준비하고, (2)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제시하고, (3)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결단에 집중한다.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에서 회개와 결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사역은 신앙 이후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신앙의 가치를 삶에서 제시하는 측면을 강조하지 못한다. 서구기독교 선교의 대상으로 간주 된 아시아교회들은 오랫동안 회심자 양성 또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의 경험을 강화하는 사역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 신앙과 삶의 체계와 관계 방식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회개 이후의 삶의 형성을 위한 신앙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실천에 주력할 것은 삶의 주기(life-cycle)를 목회에 반영하는 것이다.<sup>41</sup> 단지 새로운 생명뿐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전환 과정 곧 출생, 결혼, 죽음 등에 적절한 의례를 제시함으로써 목회

40 Melanie Ross, *Evangelical Vs Liturgical? Defying A Dichotomy* (Grand Rapids: Eerdmans, 2014), 15.

41 Jackson Carroll, *God's Potters: Pastoral Leadership and the Shaping of Congreg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6), 196.



적 접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sup>42</sup> 이와 더불어, 은혜 경험의 방편들(말씀, 성례, 기도)을 강화하고, 교회 실천의 핵심 구성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은혜 방편들의 목회적 실천 강화는 메시지 선포와 회심자 확대라는 교회 사역의 축소주의적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공동체 안에서 풍요롭게 경험하게 하는 핵심 실천 과제이다.

넷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적 지향점을 실천적으로 제시한다. 근대 정신에 기반을 둔 사역은 개인의 회심과 이성적 깨달음에 따른 말씀 수용을 강화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근대 정신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회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선교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사역은 주변 사회가 교회의 이웃이라는 점과 더불어 교회가 주변 사회와 공동체에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신학적 확신을 갖는 것보다 교회가 세상에 개입(civic or public engagement)한다는 것에 더욱 주력하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선교 지향적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 있는 이웃 가운데 억압받는 자, 소외와 단절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도움을 요구한다.<sup>44</sup> 이러한 사역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한 매력을 제시하는 것보다 주변 이웃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헌신과 희생의 섬김을 통해 개혁주의적 비전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선교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공동체의 참여와 헌신은 교회의 관계성이 단지 성도들을 향한 연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환대(hospitality)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교회들은 단일문화 또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공동성을 의도적으로 지향하며, 함께 연결된 관계성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과제를 요청받는다. 이러한 선교적 지향점을 사역에 구축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회심 경험에 집중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을 넘어선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선교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목회 사역은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과 사람 그리고 건물과 같은 외적 자원을 통한 나눔과 더불어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삶에 접촉하며, 필요한 회복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42 Herbert Anderson and Edward Foley, *Mighty Stories and Dangerous Rituals: Weaving Together the Human and the Divin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참고.

43 Mark Mulder, *Congregations Neighborhoods Place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8), 25.

44 Mulder, *Congregations Neighborhoods Places*, 29-30.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을 형성하는 것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개혁주의 목회 사역은 다문화적 상황을 종말론적 비전으로 접근하고 적극 수용한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 다른 인종, 계층, 세대의 수용과 통합을 위한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로서의 교회가 교회 밖의 문화에 대한 견해와 태도 곧 교회와 세상 또는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에 따른 긴장과 대립을 주목하고 다룰 것을 요구한다. 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서로 다른 계층이 한 공동체에 모이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일 문화 공동체로 있으면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회 성장의 원리는 단일문화(homogenous culture)로 구성될 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sup>45</sup>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미 다문화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목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정된 접근으로 사용한 기독교(교회)와 문화의 관계 구축보다는 ‘나이로비 선언문’<sup>46</sup>에서 제시한 기독교 사역의 초문화적 요소, 상황적 요소, 반문화적 요소, 교차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선언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사역의 요소들이 복음의 초월성과 문화의 상황성 가운데서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를 지닌 자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사역을 수행한 목회의 중요한 원리는 상호 배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환대와 존중 그리고 수용이다.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의 연합과 융합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비전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참여하며, 세상을 향해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무조건적 수용과 환대가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 복음에 반하는 가치를 담아낸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는 반문화적 대응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적 상황의 수용은 어느 한 문화의 우월성이나 독자적

45 단일문화 그룹의 형성은 문화의 동질성을 가질 때, 복음이 전달 및 수용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라 성장의 주된 원리와 방식으로 수용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외적 성장을 이끈 동종 그룹 또는 단일문화 그룹의 형성은 다문화적 상황의 수용과 목회적 연결에 다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동종(단일)문화 그룹의 형성은 그에 속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중한다. 동종 그룹(단일문화)과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90)을 참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 자체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단일) 그룹과 문화에 의한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한 강조가 다문화적 상황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6 예배와 문화에 대한 선언으로써, “예배와 문화에 관한 나이로비 선언문: 현대에 주어진 도전과 기회들”로 알려져 있다. 이 선언은 예배의 초문화적 요소들, 상황적 요소들, 교차문화적 요소들, 그리고 반문화적 요소들을 지혜롭게 구분해서 목회(특히 예배)에 적용해야 하는 사역의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인 구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문화를 경계한다.<sup>47</sup> 이를 위해서, 목회 사역에서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유하는 복음의 초문화적 요소를 확신하고, 다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교차문화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 5. 나가는 말

이 글은 지금까지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위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토대 구축과 실천 방향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 목회 사역은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는 초문화적(transcultural) 측면을 지니지만, 동시에 지역, 문화, 상황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주어진다. 아시아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서구기독교의 선교와 문화화된 사역 방식에 영향을 받아왔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이다.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회심 경험을 강화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은 목회 사역에서 서구기독교의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신학적 토대에 따라 문화에 부합한 건강한 사역을 구축해야 하는 방향성을 강조하는 기여를 했다. 하지만, 개인의 회심 경험과 고백 그리고 간증을 강화하는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공동체를 통해서 구축하는 과제를 비교적 강조하지 못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자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문화적 상황에 부합하게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반을 둔 관계성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교회의 중심된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며, 회심 이후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통한 변혁적 비전을 강조한다. 아울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문화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단지 성육신적 접근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곧, 교회 내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초문화적, 반문화적, 교차문화적, 반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반영하는 창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목회 사역은 단지 특정 문화의 형태를 입은 실천의 상황화를 비평적으로 경계하고, 성경과 복음에 따른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지체 상호간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

47 Felc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21.

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아시아교회들을 향한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포괄적 제안은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책임과 과제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요청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계속되는 목회적 과제들은 교회의 직제 구성, 설교를 포함한 예배 구성과 실천, 목회적 돌봄의 방식으로서 다양한 예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축시키는 교육,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문화의 가치 분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실천적 제안을 담아내는 것이다.

## 참고 문헌

Anderson, Herbert and Foley, Edward. *Mighty Stories and Dangerous Rituals: Weaving Together the Human and the Divin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Beeley, Christopher. *Leading God's People*. Grand Rapids: Eerdmans, 2012.

Billings, Todd.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Grand Rapids: Baker, 2011.

Butin, Philip.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Carroll, Jackson. *God's Potters: Pastoral Leadership and the Shaping of Congreg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6.

Chupungco, Anscar. *Cultural Adaptation of the Liturgy*. New York: Paulist Press, 1982.

\_\_\_\_\_. *Liturgical Inculturation: Sacraments, Religiosity and Catechesi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5.

\_\_\_\_\_. *Liturgies of the Future: The Process and Methods of Inculturation*. Mahwah: Paulist Press, 1989.

Crouch, Andy. *The Life We Are Looking For: Reclaiming Relationship In A Technological World*. New York: Convergent, 2022.

Curry, Janel. "Cross-Boundary Faith: The Universal and the Contextual."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47-56.

DeBorst, Ruth. "Men and Women: Made by and for Community."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85-92.

Dyrness, William. *The Earth Is God's*. Maryknoll: Orbis Books, 1997.

\_\_\_\_\_. *How Does America Hear the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1990.

Felch, Sus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119–131.

Francis, Mark. *Shape a Circle Ever Wider: Liturgical Inculturation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Liturgical Illustration Press, 2000.

Goheen, Michael. *Introducing Christian Mission Today: Scripture, History and Issues*. Downers Grove: IVP, 2014.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78.

Gunton, Colin. *The One, The Three, The Many: God, Creation and the Culture of Moder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Hawn, Michael. *Gather Into One: Praying and Singing Globally*. Grand Rapids: Eerdmans, 2003.

Horton, Michael. *Covenant and Eschatology: The Divine Drama*.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Katongole, Emmanuel and Rice, Chris. *Reconciling All Things: A Christian Vision for Justice, Peace and Healing*. Downers Grove: IVP, 2008.

Kraft, Charles.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Maryknoll: Orbis Books, 2005.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4.

Marsden, George. "The Evangelical Denomination," *Evangelicals: Who They Have Been, Are Now, and Could Be*. Edited by Mark Noll, David Bebbington, and George Marsden. Grand Rapids: Eerdmans, 2019.

McGavran, Donald.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90.

Moreau, A. Scott. *Contextualization in World Missions: Mapping and Assessing Evangelical Model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12.

Mouw, Richard. "Elected For A Global Mission."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15-28.

Mulder, Mark. *Congregations Neighborhoods Place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8.

Noll, Mark.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How American Experience Reflects Global Faith*. Downers Grove: IVP, 2013.

Ross, Melanie. *Evangelical Vs Liturgical? Defying A Dichotomy*. Grand Rapids: Eerdmans, 2014.

Scharen, Christian. *Faith As A Way of Life: A Vision for Pastoral Leadership*. Grand Rapids: Eerdmans, 2008.

Seamands, Stephen. *Ministry In The Image of God: The Trinitarian Shape of Christian Service*. Downer Grove: IVP, 2005.

Smith, James K.A.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2009.

\_\_\_\_\_. *Awaiting the King: Reforming Public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17.

Wilhoit, James. *Spiritual Formation As If The Church Mattered: Growing in Christ Through Community*. Grand Rapids: Baker, 2022.

Willimon, William. *Pastor: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Ordained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2014.

Witvliet, John. "Covenantal Communities and Reformed Mission Worldwide." In *Reformed Mission in an Age of World Christianity*. Edited by Shirley Roels. Grand Rapids: Calvin College Press, 2011: 75-84.



## 실천신학 논평

---

## “공동체성과 관계성: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목회사역의 개혁주의적 토대와 실천 방향”에 관한 논평



**김대혁** Dae-Hyeok Kim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dhkim@csu.ac.kr

### 들어가며

16세기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시아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아시아 지역 기독교 인구가 점차 성장하다가, 20세기 대규모의 부흥 운동(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거쳐 최근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 지역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종교 분포를 조사하여 통계를 제공하는 PRC(Pew Research Center)의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에 개신교 인구는 4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국컴퓨터선교회(KCM)가 2023년에 제공한 세계선교지도에 의하면, 4억 3천만 명으로 보고된다. 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8.2%를 차지하는 기독교는 현재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초기 한국의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독교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교육, 의료, 구제 등 다양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아시아교회들을 위한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려는 학문적인 시도는 현장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상호 섬김의 기회를 가지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하다.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아시아교회의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면서도, 목회 사역의 토대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자의 논문은,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향한 실천신학적 사고 양상과 사역 방향의 틀과 열개를 제공하는 매우 귀한 시도라 할 수 있다.

### 논문의 핵심 요약과 공헌

연구자의 논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을 목회 사역의 핵심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문화의 복잡성을 인식하여 성경에 기반한 신학적 정체성과 지역과 문화적 적실성이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기초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기존 서구화된 기독교의 문화화나 상황화를 조심하고, 단순한 원리와 내용의 주입식 접근이 아니라,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세 가지 주제적 흐름을 따라서, 1) 기존의 복음주의적 서구기독교의 사역 방식과 현실에 대한 비평적 평가, 2)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와 문화관에 입각한 목회 사역의 원리 확인, 3) 개혁주의 신학과 문화 토대를 둔 공동체성 강화와 관계성 구축을 위한 목회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연구자는 아시아교회들의 목회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원리와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성경의 중요성, 그리스도 중심성, 전도와 선교, 변화된 삶을 위한 회심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회심 경험을 강조하는 사역이었다. 둘째, 복음과 문화의 연결과 통합을 모색하는 상황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월주의'나 '혼합주의'적인 상황화를 경계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실제 복음의 문화화를 이해하며 실천하는데 도식적인 관계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관계를 분별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앞선 두 가지의 특징과 더불어 기존의 상황화의 방법이 기독교적 교리나 가르침을 실천에 연결하는 지식과 원리 위주의 명제적인 접근방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교리와 지식도 전달도 중요하지만, 삶의 형성의 총체적인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복음주의적 목회 사역의 특징에 대한 비평과 함께, 연구자는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신학적 문화적 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 중심성, 복음과 문화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는 복음주의 목회 사역과 공유점이 있지만,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전통은 삼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언약에 기반한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 섬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개혁주의 목회 사역의 원리로 첫째,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적 관계성을 기초로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인정하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강조한다. 둘째, 삼위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구축하는 원리를 수행한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의 방식을 따라서 성도 각자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책임과 반응을 고취하도록 한다. 셋째, 세상 문화 수용과 변혁을 위한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되, 교회를 이상적인 개념으로 추상화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구현과 동시에 교회를 통한 세상을 향한 관계를 구축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넷째, 이는 교회의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독려한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세상 문화에 반영되도록 하는 교회의 책임과 과제를 준다. 이 가운데 교회의 대사회적 사역은 우월주의와 혼합주의를 피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연구자는 앞선 개혁주의 사역 원리를 따라서 아시아교회들을 향한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목회 사역의 방향과 실천 과제들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분명한 직접적인 사역 과제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개인주의적 삶에서 나오는 폐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교회의 기본 실천이 사회적 적실성보다 항상 우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비전을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구현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 고백과 경건 실천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공동체적 회복과 연대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회심 중심의 사역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 형성, 성화론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심 이후에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신앙 실천과 형성을 추구해야 한

다. 넷째,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적 지향점을 확립하고,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이 실천적으로 제시되는 사역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참여와 헌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종말론적 비전 아래에서 교회와 문화의 관계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분명한 복음의 초월성과 다양하게 구현되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가장 큰 공헌은 기존의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현상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정리와 비평, 개혁주의 입장에서 목회 사역이 지향해야 할 원리와 실천 과제들을 매우 선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복음의 상황화라는 당위성 속에서 자칫 복음과 문화의 관계 규정이나 기존의 단일화된 모델로 함몰되어 획일화 혹은 파편화된 복음의 문화 접근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논문이다.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난 목회 현상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선명한 분석은 오늘날 아시아교회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목회 현실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교회에서 교리와 가르침의 현실 적용의 실천 신학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앙이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되는 방식에 능숙하지 못한 한국교회들에 대한 비평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특별히 이 논문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에 기초한 언약 신학적 강조점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복음주의 목회 사역의 비평에 대한 대안과 더불어 선명한 신학적 모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상적으로 개인주의적이며 소비주의적인 서구기독교의 약점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아시아교회들의 실천 양상들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교정해 나가도록 하는 실천 신학적 렌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논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교회를 포함한 아시아교회들이 목회 사역을 구현해 나감에 있어서 서구기독교의 맹목적인 답습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기반 위에서 건실한 목회 사역과 실천에 훌륭한 사고의 틀 거리를 제공함이 틀림없다.

## 질의들

연구자의 논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선명한 실천 신학적 방향성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논평자는 논문 자체의 평가보다는 이 논문을 토대로 아시아교회들에 대한 목회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더불어 이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다.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기에, 상황화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상 분석과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제시한 사역 방향과 과제 역시도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현장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자명한데, 이때 신학자와 현장 사역자가 취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나 가장 주의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연구자의 고견이 궁금하다.

둘째, 아시아 지역은 문화적으로 다채로울 뿐 아니라, 사실 정치적, 사회적 도전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실천 신학적 변치 않는 상수와 더불어 정치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변수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점이 아시아지역교회를 향한 목회 사역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제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궁금하다.

## 닫는 글

아시아 지역 교회의 일어섬과 나아감은 세계 기독교의 미래의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이론 신학자들의 연구와 제안, 현장 전문가들의 분석과 적용을 통한 대안의 성찰적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목회 사역의 패러다임에 대한 현상 분석과 개혁주의 역사에서 검증된 원리를 제공하여 선명한 목회 사역의 방향과 과제들 제시해 주신 연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